

“이세상 불경 중 단 하나만 남겨야 한다면...잡아함경”

한문대역 잡아함경 전5권 · 인류의 스승,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김윤수 역주 | 한산암 펴냄 | 11집6만원 | 5만원



“세상에 있는 불교 경전 중 하나만을 남기고 모두 없애야 하는 사건이 혹 발생한다면? 그 하나를 남기게 하라.” 역자의 말이다. 한문대역 <잡아함경> 5권과 그 5권에서 한역문과 각주의 설명을 제외한, 순 한글 번역본만을 한 권으로 모은 <인류의 스승, 붓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법(法)과 율(律)로 나뉘고, 그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장(藏)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 경장(經藏)과 율장(律藏) 그리고 논장(論藏)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체계적인 형태로 모아 놓은 것이 경장이고, 승가에서 지켜야 할 계율을 담고 있는 것이 율장이며, 경의 가르침을 깊이 연구하고 체계화한 것이 논장이다. 이 가운데 경장을 남방의 팔리어 전승에서는 니까야, 즉 부(部)라고 하는데, 장부(長部), 중부(中部), 상응부(相應部), 증지부(增支部), 소부(小部)의 5개 부로 나누고 있다. 한편 북방 산스크리트 전승에서는 경장을 아가마(阿含·阿含), 즉 ‘전승된 것’이라고 부

등의 술어는 오로지 아함에서만 충분히 익혀지는 개념이다. 그리고 제법계공(諸法皆空)도 ‘오운은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아함교리의 전개에 불화함을 볼 수 있어 <반야경>의 기초가 <아함경>에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역자 · 김윤수

기원 후 4세기 후반에 5세기 초반 사이에 산스크리트 전승의 4아함이 중국에서 한역되었고, 팔리어 전승의 5부는 남방 상좌부파는 단일 부파에서 전승해온 것이 온전히 보존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부파에서 전승되어온 경장은 대부분 산실되었다. 기원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사이에 중국에서 한역된 4아함은 단일한 부파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4아함은 범장부 소속의 <잡아함경>, 대중부 계통의 어떤 부파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일아함경> 등 몇몇 부파에서 전하는 아함이 따로따로 번역되어 하나의 경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비록 전승해온 부파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교리적인 바탕에 있어서는 놀라울 만큼 한결같은 일치를 보이고 있다.

4아함 중 어느 것이 먼저 성립되었는지에 대한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승하는 초기의 방법은 암송에 의한 구전이었다. 암송해서 구전되는 것을 서사하여 전하면서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학자들에 따르면, 4아함 가운데 짧은 계승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잡아함경>이 가장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잡아함경>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모은 것이면서, 그 원형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서, 불교의 근본이 되는 소중한 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중요성에 어울리지 않게 구나발다라 한역의 현존 50권 본 <잡아함경>은 그 원래의 내용 아닌 것이 혼입되어 있고, 순서도 뒤바뀌어 있는 것은 물론 교정과 운문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초벌 번역 후 판각되기 전 모종의 사건이 개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존 한역본은 이 혼란한 모습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약점을 안고 있는 경전이기도 하다. 이번에 출간된 두 종의 책은 순서와 편제를 바로 잡으며, 경문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혼란한 모습을 바로 잡음으로써 가르침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했다. 두 가지 번역본 중 <한문대역 잡아함경>(전5권)은 이 경전을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5부로 나누어 한역문과 대비하여 번역하고, 그 각주에서 이해에 필요한 소상한 설명을 덧붙여, 이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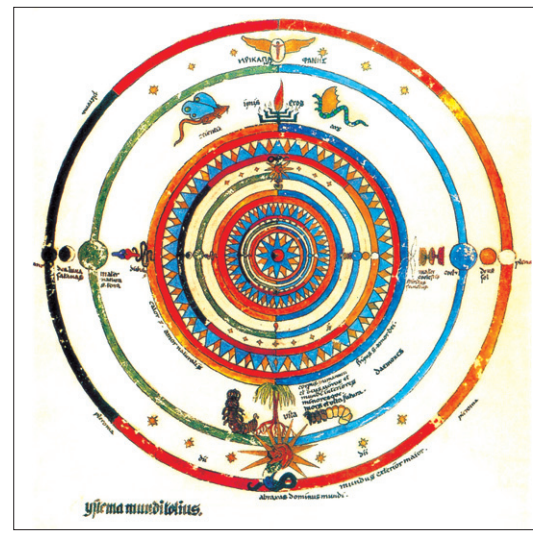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인류 또 하나의 언어 ‘도형’



도형, 그림의 심리학
잉그리트 리델 지음
신지영 옮김
파피에 퍼냄
1만7천원

‘성격이 둥글둥글하다’, ‘성격이 모퉁이’ 등 인류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의미를 도형으로 대신(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둥근 것은 원만하고 포용력이 있으며, 모난 것은 비타협적이고 제한적이며 딱딱함으로 설명하고 받아들인다. 책은 인류의 심리 한 쪽을 형성해온 삼각형, 사각형, 십자, 나선, 원, 그리고 만다라 6가지 도형에 대한 연구다.



칼 융이 처음으로 그린 만다라 그림

융과 심리학자이자 임상심리사로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책에서 자신의 치료 경험과 여성 특유의 섬세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해온 6가지 기본 도형을 통해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탁월한 통찰력을 펼쳐 보인다.

책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에서 각 도형의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제목으로 삼아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사각형은 ‘경계 안에 있음’으로, 십자는 ‘펼쳐져 있음’ 삼각형은 ‘연관되어 있음’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각 도형의 형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해석과 자연적인 형태로서의 도형과 인간의 의식 속에서의 상징적 형태로서의 도형, 각 도형의 실존적이고 심리학적 의미 등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전개한다.

“구스타프 클림트는 자신의 작품에 삶과 죽음이라는 대립을 수용했다. 1916년에 나온 <죽음과 삶>이라는 그림이 그려한테 이 그림은 1차 대전이 남긴 인상을 바탕으로 그려졌다. 여기서는 젊은 여자의 웃고 어머니의 붉은 색 옷에만 나선이 나타난다. 여기서 인물로 등장하는 죽음은 원과 십자로 상징화 되어있다.”

저자는 그림치료의 권위자답게 많은 유명 화가들의 그림과 자신이 직접 상담했던 환자들의 그림을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피에트 몬드리안의 ‘뉴욕’, ‘빨강, 파랑, 그리고 노랑의 구성’, 구스타프 클림트의 ‘기대’, ‘성취’, ‘죽음과 삶’, ‘키스’ 등 근현대 화가들의 그림 속의 도형이 가지는 의미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보이는 도형과 관련된 분석도 흥미

삶의 ‘문제’ 들...오히려 ‘기회’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김기태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1만3천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내 안에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 같은 것이 늘 있는 것일까? 이 괴로움은 언제쯤 끝이 날까?”

명상, 치유에세이다. 저자는 도덕경 강의서인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의 저자이기도 하다. 전작이 완전한 자유의 길을 보여주는 입문서였다면, 이 책은 살면서 부닥치는 온갖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천편이라 할 수 있다.

책은 저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삶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 가운데 70개의 질문응답을 선별하여 엮은 것이다.

저자의 메시지에선 상식을 뒤엎는 혁명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는 ‘반대의 길’을 얘기한다는 것이다.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려면,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자유롭게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으

려면, 정반대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어찌까지 해온 것과는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는 결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리려 할 것이 아니라 인정해 보십시오. 진실한 인정은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키는 사랑의 에너지가 됩니다.”라고 답한다.

왜 반대의 길을 제시할까. 왜냐하면 진실을 오해하고 있으며, 반대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며, 나빠보이는 것은 거부하고 좋아보이는 것은 추구한다. 내면의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한다. 그래서 불안, 분노, 미움처럼 나빠 보이는 것은 거부하고 당당함, 자비, 사랑 같이 좋아 보이는 것은 추구하며 그쪽 길로 계속 가면 해방의 출구가 나올 것이라 믿는다. 책에는 통찰의 눈에서 나오는 지혜들이 가득하다. 또 하나 이 책의 미덕은 삶의 문제들에 대한 미봉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근본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삶의 문제들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자유와 평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된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26 ~ 7/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그런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4	이해하고 내려놓기	일묵	공리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살아는 모든 순간이 생애의 마지막 생애	탁한한	불광출판사
7	명상에 답이 있다	장형갑	담앤북스
8	살이 깊은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9	마음공부와 선 (관음수행법)	김성갑	운주사
10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역 잡아함경)	김윤수	한산암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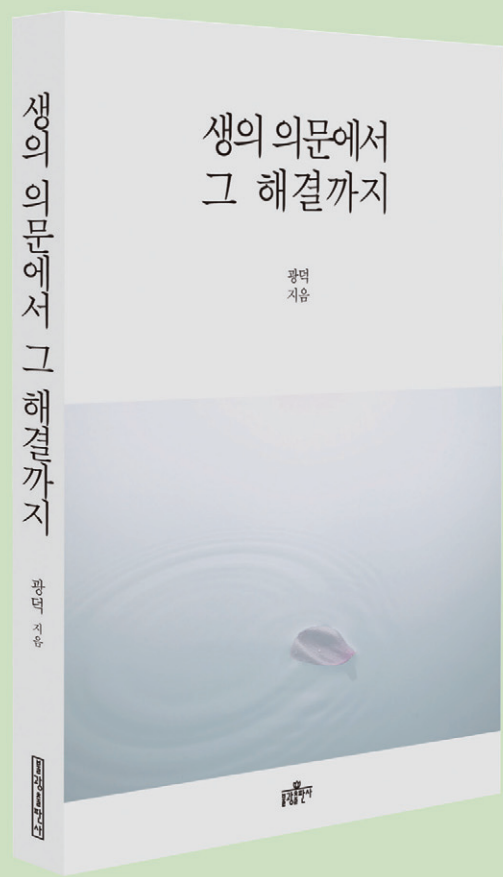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금하광덕 스님의 구도문답집 초심 불자들을 위한 <불교입문>의 결정판!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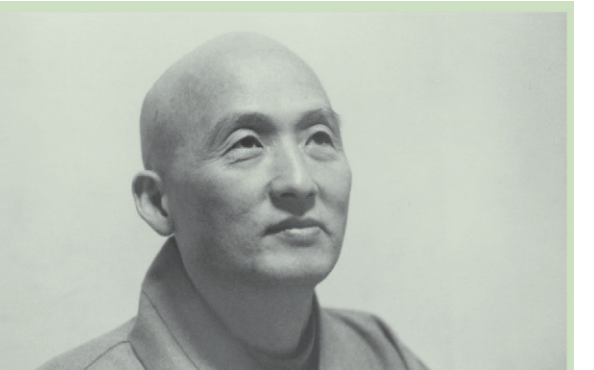
금하광덕 지음
352쪽 | 12,000원



개정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수행은 어떻게 하는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보시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 부처님, 보살, 교리, 수행, 보시·전법, 생활, 기도, 참선, 한국불교 등 불교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200여 종의 문답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진리에 대한 믿음과 지혜, 용기를 불어넣어 삶의 등불이 되는 <불교 입문의 결정판!>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금하광덕 스님의 책들

- 경전 강의서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원공 강의
- 경전 번역서
금강반야바라밀경! 천수문운경! 부모은중경-관음경 지장경! 한영 보현행지의 사연
- 선어록 번역서
육조단경! 선관책전! 무문관
- 법어집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 구도 문답집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삶의 빛을 찾아서
- 삶의 지혜를 여는 컬렉션
행복의 법칙! 빛의 목소리
- 광덕 스님 명상언어집
불·어름·가을·겨울(제4권)! 생명은 밝은 태지 성장한다
- 불교 의식집
우리말 법회요건! 연화위식문! 불자 수행인파요전! 지장기도집 지중 금강경! 지중 보현행원공